

I. 정 무

1. 핵협상 최근 동향

- P5+1-이란은 4.2(목) 스위스 로잔에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으로 명명된 이란 핵협상 최종합의문의 핵심요소(key parameters)에 합의
 - 예정대로 6.30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
- 주요 발표내용(*첨부 1. 로잔 공동성명 관련 미국과 이란측 발표내용)
 - (농축·재처리 활동) △ Natanz 시설에서만 우라늄 농축 허용, △ 원심분리기 관련 R&D는 합의된 범위기간 내에서만 수행, △ Fordo 시설의 원자력연구센터로의 전환, △ Arak 중수로 설계변경, △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금지
 - (검증 및 평화적 핵이용) △ 추가의정서 가입 및 개정 Code 3.1의 이행, △ 과거·현재 핵활동 검증을 위한 IAEA 사찰계획 수용, △ 민수용 원자력 분야에서 이란의 국제협력 참여 허용
 - (제재 해제) △ 이란의 핵심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IAEA 검증시 EU의 경제·금융제재 종료(terminate), 미국은 2차적 경제·금융제재 적용 중단(cease), △ 안보리의 JCPOA 승인 및 기존 안보리제재 결의 종료, 다만 새 결의에서도 일정한 제한조치는 유지

2. 향후 전망

- 긍정적 신호
 - 농축·재처리 분야 핵심쟁점 중의 상당부분 타결 : P5+1로서는 이란 핵활동 제약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반면, 이란으로서는 그동안 불가결의 권리로 주장한 ‘농축권리’ 확보
 - 참가자들의 타결의지 시험 : 협상시한을 넘기면서 계속 협상 진행
- 장애 요인
 - 금번 합의는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이므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각측의 이해가 엇갈릴 가능성 불배제
 - 특히 △ 제재 해제시점 및 방식, △ 군사적 측면(PMD) 검증, △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
 - 아울러, 미 의회내 논의중인 ‘이란 핵합의 심의법안’에 따라, 행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30일간의 의회 심의에서 부정적 결론이 날 경우 미국의 제재법률이 유지될 가능성 상존

II. 경 제

1. 핵협상 이후 경제동향 (*첨부 2. 이란 주요 경제지표)

- 지난 4.2(목) 이란-P5+1간 로잔 공동성명 발표 이후, 이란 외환 및 주식 시장은 공동성명 발표 이전보다 각각 2%, 3.1%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관망적 분위기임.
- 경제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경제제재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timetable) 제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해제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 질 것이며, 원유수출 역시 2016년이 되어서야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6월말 최종 핵협상 타결까지 당분간 환율 및 주식 시장 등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이란 정부는 6월말 핵협상 최종 타결시 경제제재 완화에 대비하여 중국, 유럽, 터키, 인도 등 주변국들과 원유, 가스 및 에너지플랜트 개발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활발히 모색중임.
- (중국) 잔가네 석유부 장관이 4.9-10 중국을 방문하여 원유 수출 및 석유 화학 분야 합작투자 관련 논의
- (유럽) 제재해제 이후 이란의 석유화학 및 정유, 금융 분야 등에 재진입 하기 위하여 독일, 영국 등이 접촉 시작
- (터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4.7 이란을 방문하여 천연가스 수입 확대 방안 논의
- (인도) 케르 인도 상무장관이 4.6-7 이란을 방문, 양국간 특혜무역협정 (PTA) 체결 등 통상 강화 방안 논의

2. 국내 이란 제재 관련 설명회(4.16)

- 우리 정부는 4.16(목) 미 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Andrew Keller) 방한 계기, 로잔 공동성명 발표 이후 우리 기업들의 문의사항 등 대이란 제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함.
- 정부 관련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참석하여 미국측의 설명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실시함.

※ (정부 관련기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은행 등

※ (은행, 기업 등 민간단체) 우리은행, 기업은행,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림산업, 법무법인 율촌, 플랜트산업협회, 선주협회 등

- (미측 설명내용) 켈러 부차관보는 4.2 로잔에서의 잠정타결이 이란 핵 협상의 진전임에는 사실이지만 최종합의가 아니며 P5+1과 이란은 최종협상 기한인 6.30까지 많은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바, 현 제재구조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언급함.
 - 만약 6.30 최종합의에 도달할지라도 하루이틀 사이에 제재완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IAEA를 통한 이란의 핵 관련 주요 조치 이행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부연함.
 - 민간부문에서 대이란제재 관련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최종협상 타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제재조치 이행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함.
- (질의·응답 ①) 핵협상 최종타결시 제재해제 시기 관련 미-이란간 이견이 있는데 제재 관련 합의 달성 전망은? 또한, 제재해제시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분야와 수순을 통해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보는지?
 - P5+1은 최종합의 타결시에도 IAEA의 검증절차 없이는 제재해제나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표명해왔다고 함.
 - 제재 완화 혹은 해제시 구체적 시간과 내용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으나 협상 종료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기업들이 제재해제 관련 정보를 필요로함을 이해하며 최종협상 타결시 한국측에 최대한 빨리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질의·응답 ②) 이란의 해외동결자산 해제시, 국내은행의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 잔액도 해외동결자산에 해당되는지? 원화계좌가 해외동결자산으로서 인정되어 이란에 즉시 반환되고, 달러화 지급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측에서 일시적 지급불능 문제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바, 관련 의견은?
 - 원화계좌는 이란 원유수입대금을 예치하는 계좌로서 양자간 무역에만 사용되는 경우로 OFAC(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는 이를 '제한계좌(restricted accounts)'라고 부르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6개국만이 JPoA상 원유대금 이체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제한계좌 처리 문제는 최종 합의 타결시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함.
 - 공동성명에서는 합의 달성시 EU는 모든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반면, 미국은 모든 핵 관련 2차적 제재 해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바, 미국의 1차적 국내제재 및 테러리즘, 인권침해 관

런 제재는 지속될 것이므로 유로화 결제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달러화 거래는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함.

- (질의·응답 ③) 제재해제 이후, 대이란 교역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란의 중대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제재가 복원(snap-back)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재 복원시 제재완화 이후 재개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유예가 보장될 것인지? 제재 완화시점과 제재 복원시점 사이에 일어났던 거래에 대해, 제재 복원시 부과될 제재 조치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 협상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어떠한 최종 합의에도 제재 복원 조항은 포함될 것이라고 하고, 정확한 유예기간에 대해 말할 수는 없으나 제재 복원시 일정 유예기간 또는 '거래 감소를 위한 기간(wind-down period)'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변함.
- 이란의 심각한 합의 불이행시 제재는 복원될 것이며 이란 정부·기업이 부당한 혜택을 받지 않고 제3국측 기업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만약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도 OFAC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제3국이 피해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제재의 소급적용은 없을 것이나 제재복원 이전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재복원 시점 이후 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함.

III. 에너지 · 건설 · 교통 (*첨부 3. 이란 주요 개발프로젝트)

1. 이란의 1394년도(2015.3~2016.3) 예산 중 개발사업 현황

○ 1394년도 예산 총액 : 2,940억불(전년도 대비 3.1% 감소)

- 개발사업비용 : 167.6억불(전년도 대비 15.8% 증가)

※ 이란력 1393년의 경우 개발사업 비용 예산은 154.7억불이었으며,

실제 배정액은 113.2억불

○ 개발사업 중점 투자분야 : 80%이상 진행된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하고, 신규사업은 중점투자 분야 위주로 제한

- 주요광산 인프라 구축

- 사우스파 가스전(카타르와 공유) 생산 증대

- 웨스트카룬 유전(이라크와 공유) 개발

- Combined cycle steam 발전소사업(7000MW 전기생산)

- 1,500km의 도로 · 철도사업, 항만 확충사업(시설용량 2.1억톤 증대)

- Mehr 사업 등 주택개발사업

- 31개 병원건설 사업(3,500 병상), 9개 스타디움 건설

- 60개 고출력 TV 중계장비 공급

※ 현재 이란에는 377.4억불이 투자된 2,800여개의 미완공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동 사업에 향후 1,509.4억불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실정

2. 이란의 국가개발기금(NDF) 현황

○ 총규모 : 710억불

- 금년 1394년 회기연도(2015.3~2016.3)에는 석유가스분야에 100억불, 석유화학 및 정유분야에 62억불, 수자원분야에 54억불, 발전분야에 33억불, 철강분야에 32억불, 철도분야에 26억불, 수질처리 및 농업분야에 10억불, 광공업 및 관광분야에 10억불 등 총 327억불 투자 예정

3. 이란의 건설시장 규모 및 전망

○ 이란의 건설시장 규모는 2006년 55.4억불에서 2011년 314억불까지로 대폭 상승하다가, 이후 제재 영향으로 2014년 244억불로 감소

- 금년에 제제가 해제된다면, 2015년 300억불에서 2023년 약 1,170억 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BMI)

4. 석유·가스 분야

- 현재 이란의 석유생산용량은 400만bpd로서 2020년까지 470만bpd로 늘릴 계획이며, 가스생산용량은 650백만입방미터/일로서 2017년까지 10억입방미터/일로 늘릴 계획
- 이를 위해 이란 석유부는 유전개발에 200억불, 사우스파(South Pars) 가스전 개발에 290억불 투자 예정
- 석유생산용량을 늘리기 위해 이란에서 집중 투자하는 지역은 웨스트카룬(West Karoun) 지역임. 동지역에 남·북 아자데간(Azadegan), 남·북 야란(Yaran), 야다바란(Yadavarar)의 5개 유전이 있으며, 일산 1백만배럴/일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가스생산용량을 늘리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지역은 세계최대 단일 가스전인 사우스파(매장량 14조 입방미터) 지역
- 유가하락 및 국제제재에 따라 실제 석유생산은 290만bpd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2015.1월 총 268만bpd 중 64만bpd를 이란에서 수입
- 기존의 천연가스 수출국인 터키 이외에도 이라크, 파키스탄, 오만 등 주변국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유럽, 중국, 인도에 천연가스 수출을 구상하고 있음.

5. 석유화학 분야

- NPC(이란국영석유화학공사)는 1393년 중 석유화학 생산물은 43백만톤에 이르고 수출액은 90억불이라고 발표
- 아울러, 동 사는 1년 후에는 120억불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이를 위해 생산용량을 180백만톤으로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현재 석유화학 생산용량은 70여개 플랜트 60백만톤이고 용량의 약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60개 프로젝트 완성시 생산용량은 120백만톤이 되고, 410억불 투자가 소요되는 36개 신규프로젝트 완성시 180백만톤이 됨
- 석유화학 담당 중앙부처는 과거 산업광물통상부였으나, 석유 가스 업

무와 일원화를 위해 현재는 석유부에서 담당

- 모가담 NPC 사장은 향후 석유화학 관련 유망지역으로는 이란 남동부의 Chabahar와 Jask지역이라고 언급함.
- 사유는 인근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로 발생하는 천연가스 여유량을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란은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최종상품 수출국으로 전환하고자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분야가 석유화학 분야임.

6. 광물 분야

- 이란의 현재 철강생산용량은 20백만톤 수준이며, 건설경기 침체로 국내 철강수요는 일시적으로 감소
 - 2025년 까지 생산량을 55백만톤으로 늘리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중
- 이란 철강산업 현황

(단위: 백만톤)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수입량
2013	15.4	25	1.9	3.6
2014	17	20	2.9	5.9

7. 교통 분야

- (도로) 현재 도로 총연장은 약 20만km이며, 이중 약 80%가 포장도로임. 전체 화물수송의 70%를 도로가 담당
 - 주요사업으로 이란 도로 및 도시개발부(MRUD)에서 시행하는 테헤란과 북부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연장 121km의 고속도로 사업이 있음
 - 현재 제4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제1공구를 2015.2월말 중국 건설회사가 착공하였으며, 미착수한 제2, 3공구는 험난한 산악지대를 지나 35억불의 사업비와 112개의 터널공사가 필요하여 사업진행이 더딘 상태이나, 조속히 착수토록 노력하고 있음.
- (철도) 현재 철도 총연장은 13천km이며, 매년 1천km씩 확대하여 2025년까지 25천km로 확대 예정. 전체 화물수송의 25%를 담당
 - 주요 국제철도 프로젝트로서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 북유럽을 연결하는 INSTC(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가

2000년 9월 발표된 바 있음.

- 창립 회원국은 이란, 인도, 러시아 이며, 기타 회원국으로 오만,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우크라이나 등 10개국이 있음.
- (항만) 페르시아만의 반다르 압바스가 해상무역의 85%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확대 추진중
 - 반다르 압바스의 샤히드 라자이항 3단계 발전계획을 착수하였으며, 동 계획은 5억불을 투자하여 1,500m에 달하는 선석들을 건설하고, 5백만 입방미터의 준설을 시행하는 것임.
 - 3단계 계획을 완료하면 동항의 선적용량은 현재 6백만 TEU에서 8백만 TEU로 증가하고, 항만 배후지는 현재의 2,400헥타아르에서 4,800헥타아르로 2배 확대 예정
 - 그 외에도 부쉐르항, 차바하르항, 아미라바드항, 안잘리항 등의 확장 계획을 추진중
- ※ 우리 선사들이 2015.5.1.일자로 반다르 압바스 샤히드 라자이항 제2터미널에 기항재개 예정임을 미측에 통보함. 제2터미널의 운영권이 제재대상인 TME사에서 Sina사로 변경되어 제재에 위반되지 않으며, 향후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기항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재개하는 것임.
- (공항) 전국적으로 총 319개의 공항이 있으며, 활주로가 포장된 공항은 140개소임. 민간공항은 54개소이며, 국제공항은 8개소임.
 - 주요 프로젝트는 이맘 호메이니 공항 2단계 확장사업이며, 사업비는 28억불이고 수용목표인원은 연간 2,650만명임. 향후 3, 4단계 확장 구상도 있음.
 - 그 외에도 주차장, 에어포트 호텔, 몰, 소매점, 레크레이션 콤플렉스, 화물터미널, 창고, 여객 및 화물 처리 서비스 등에 투자유치 추진

8. 발전, 수자원 분야

- 이란의 발전량은 2013년 224.1TWh로, 연간 수요량인 185.4TWh를 충족하고 있지만,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 지속적으로 확충 예정
 - 부문별 전력생산은 2014년 기준 총 228.1TWh 중 천연가스 154.1, 석유 55.8, 수력12.2, 원자력 5.4, 석탄0.4, 재생에너지 0.2 순임.
 - 가스발전 비중을 현재 68%에서 2023년까지 74%로 확대할 예정이며, 러시아와 공동전력망(Shared Power Grids) 건설을 추진 중임.

- 원자력은 부셰르 발전소가 2013.9월 상업운영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7기 추가 건설을 러시아, 중국과 협의 중
- 이란에는 약 600개의 댐이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그 중 대형댐은 2개소임. 수력발전 및 수자원관리 등을 위해 신규댐 건설을 추진 중

IV. 한국-이란 간 교역 동향 (KOTRA)

1. 연도별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 US\$ 백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월~2월)
수 출	6,068 (32.0%)	6,257 (3.1%)	4,481 (-28.4%)	4,167 (-7.0%)	743 (46.2%)
수 입	11,358 (63.7%)	8,544 (-24.8%)	5,564 (-34.9%)	4,578 (-17.7%)	352 (-67.8%)
무역수지	-5,290 (-125.7%)	-2,288 (57.1%)	-1,084 (52.6%)	-411 (62.1%)	391 (32.7%)
교역규모	17,427 (51.1%)	14,801 (-15.1%)	10,045 (-32.1%)	-411 (62.1%)	1,095 (-31.5%)

2. 월별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 US\$ 백만)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출	금 액	324	367	383	345	329	439	382	354	439	380	364
	증감률	7.28	13.3	4.36	-9.92	-4.64	33.4	-12.9	-7.3	29.8	43.4	49.8
수입	금 액	435	224	468	441	448	420	200	360	285	158	194
	증감률	99.5	-48.5	109	-5.76	1.59	-6.25	-52.4	80	-30.7	-29.5	-77.6
수 지		-112	143	-85	-96	-119	18	182	-6	154	222	170

※ 올 2월까지 대이란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5.9% 증가한 7억 3,248만달러, 대이란 수입은 67.7% 감소한 3억 5,154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 9,170만달러 적자를 기록

※ 이란은 2014년은 제31위 (0.58%)수출대상국 이며, 2015(1~2월) 24위(0.86%)를 기록했고, 수입은 2014년 27위(0.87%), 2015년(1~2월) 32위(0.48%) 기록

3. 주요 품목별 對이란 수출현황

(단위 : US\$ 천, %)

순 위	품목명	2014		2015(1~2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4,162,243	-7.1	743,249	46.2
1	합성수지	434,671	8.9	88,616	56.1
2	자동차부품	258,996	92.8	58,684	193.7
3	칼라TV	397,257	-18.8	51,480	50.9
4	냉장고	264,256	10.7	39,985	18.8
5	열연강판	132,457	12.7	33,746	48.6
6	평판디스플레이	203,851	-7.5	33,589	17.8
7	무선전화기	114,189	109.1	33,540	339.3
8	냉연강판	115,001	247.5	24,946	298.6
9	기타플라스틱제품	57,853	16.6	22,897	178.7
10	세탁기	103,800	2.4	19,242	-3.4
11	에어컨	14,090	-79.8	18,380	4,399.0
12	기타석유화학제품	96,214	-3.2	15,999	-3.6
13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2,067	80.0	15,353	54,049.1
14	건설중장비	83,390	392.8	15,060	958.7
15	타이어	105,679	42.7	14,660	75.8
16	펌프	59,743	5.8	11,730	56.5
17	아연도강판	68,488	42.3	11,638	27.2
18	공기조절기	79,050	17.4	11,363	-59.0
19	인쇄용지	79,876	-59.5	11,193	23.5
20	기타종이제품	48,935	54.8	10,605	70.5

[자료원 : 한국 무역협회]

※ (수출) : 세탁기(3.4%↓), 기타석유화학제품(3.6%↓) 등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부품(193.7%↑),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54,049.1%↑), 에어컨(4,399.0%↑) 수출 증가

4. 주요 품목별 對이란 수입현황

(단위 : US\$ 천, %)

순 위	품목명	2014		2015(1~2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4,578,119	-17.7	351,540	-67.8
1	원유	4,502,474	-12.3	295,987	-72.7
2	LPG	39,266	-83.5	52,859	5,394.6
3	합성수지	2,739	3,002.5	1,110	134,465.2
4	연괴밋스크랩	2,561	33.2	541	0.0
5	과실류	983	60.2	321	524.7
6	기타석유제품	195	-52.5	127	269.9
7	식물성한약재	788	60.2	96	-0.2
8	기타섬유제품	157	-46.6	83	-18.5
9	음료	679	-20.3	70	-58.3
10	개별소자반도체	3	173.9	68	0.0
11	건설중장비	305	376.4	37	0.0
12	견과류	572	39.4	34	-63.2
13	기타화학공업제품	45	-42.7	33	-9.5
14	기타비금속광물	308	71.8	31	-85.0
15	고령토	47	0.0	22	0.0
16	의료용전자기기	1,669	1,610.0	21	2,164.5
17	윤활유	55	398.8	21	90.4
18	컴퓨터주변기기	15	-64.9	19	3,911.3
19	타일	461	8,150.7	17	-85.8
20	안료	251	2,237.0	12	59,940.0

[자료원 : 한국 무역협회]

※ (수입) : 대이란 수입의 98%를 차지하는 원유 수입이 72.7% 감소했으며, 기타비금속광물(85.0%↓), 타일(85.8%↓) 등 제품도 수입이 감소

- 합성수지(134,465.2%↑), LPG(5,394.6%↑) 수입 증가

- 첨부 1. 로잔 공동성명 관련 미국과 이란측 발표내용
 2. 이란 주요 경제지표
 3. 이란 주요 개발프로젝트

(첨부 1. 로잔 공동성명 관련 미국과 이란측 발표내용)

쟁점	미국 측 발표내용 ※ 미 국무부 Key Parameter 발표 내용	이란 측 발표내용 ※ 이란 Press TV 보도
농축	원심분리기 숫자 19,000대 ⇒ 6,104대(2/3)수준으로 감축 / 이 중 5,060대 원심분리기로만 향후 10년간 농축활동 가능	이란의 핵활동은 중단증지 없이 모든 핵 시설내 활동이 지속 / 이란내 농축활동 허용, 원전 가동에 필요한 핵 원료의 산업적 생산도 가능 - 원심분리기 5,000개 이상 가동
	(BoT) 현재 2-3개월의 BoT가 향후 10년에 걸쳐 1년 정도로 연장 예상	(BoT) 언급 없음
	(저농축 우라늄) 비축중인 10,000kg 상당 저농축 우라늄을 향후 15년간 300kg 수준으로 감소	(저농축 우라늄) 현 재고는 핵연료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국제시장에서 우라늄과 교환
포르도 시설	설계 변경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방지 / 향후 15년간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R&D 수행 및 핵분열 물질 보유 금지 / 시설내 원심분리기 및 관련 시설의 2/3 제거, 잔여 원심분리기는 IAEA 감시하에 두고 농축에 활용 금지	R&D 센터로 전환 후 동 시설에서 1,000개 이상 원심분리기 유지 / P5+1 국가와 협력, 포르도 시설 절반을 산업농업의약품 동위원소 연구 생산에 할애
나탄즈 우라늄 농축공장	구형 원심분리기(IR-1) 이외 신형 제거, 향후 10년간 신형 원심분리기(IR-2,4,5,6)을 이용한 농축 금지	합의 이행 10년간 원심분리기 5천 개 이상으로 3.67% 농축 프로그램 지속 / 이외의 원심분리기는 국제기준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 대체되기 위해 IAEA에 의해 수거
사찰 및 투명성	이란내 모든 농축시설에 대한 정기적 사찰 실시	신뢰구축조치 일환으로 임시적이고 자발적으로 추가의정서를 이행 / 이란 정부·의회가 추가의정서 정식 비준
	(공급망에 대한 사찰) 투명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사찰 매커니즘 도입 : 이중용도 원료 및 기술의 공급·판매·이전을 감시 승인할 수 있는 강화된 획득체제 구축 / 이란이 25년간 옐로 우케이크를 제조해온 우라늄 광산 및 제련소에 대한 감시 (IAEA 추가 의정서) AP 이행합의(미신고 시설 불시 접근 및 사찰 보장 포함) / 새로운 핵시설 건립시 조기통보를 의무화하는 Modified Code 3.1 이행 의무 수용	
원자로 및 재처리	(설계 변경 및 재건축 실시) △플루토늄 생산 금지 △평화 목적 원자력 연구 수행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가능케 할 원자로 노심의 폐기 혹은 국외 반출 / 재처리, 관련 연구, 사용후 플루토늄 개발 미수행	이락 시설은 재설계현대화 재설계 작업은 국제협력사업 일환으로 원전 효율성 높이고 플루토늄 생산량 감소

	(중수) 아랍 원자로 수요 초과 중수 보유 금지, 잔여 중수는 향후 15년간 국제시장을 통해 판매 조치 / 향후 15년간 추가 중수로 건설 금지	
제재	(마EU 핵관련 제재) IAEA가 관련 이란 조치들을 검증한 후 중단(suspend)되며 이란의 의무 불이행 시 재부과(snap back)	JCPOA 이행에 따라 모든 안보리 제재와 미국-EU의 모든 경제, 금융제재(은행, 보험, 투자, 석유화학, 원유 및 가스, 자동차산업 등)을 해제
	(미 제재 구조) 미국의 관련 제재 구조 (architecture)는 유지, 합의 중대한 위반 발생시 복원	특히 이란 중앙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등 모든 핵관련 제재대상 국가·민간기관에 대한 제재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제
	(UN안보리 제재) 기존 이란핵관련 결의안들은 이란이 농축, 포르도, 이라크시설, PMD, 투명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완료함과 동시에 해제 / UN안보리상 핵심 규정(민감 기술 이전 및 활동)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추가적으로 반영 /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담당할 체제 구성, 동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해 의견 해소 불가시 기존의 모든 UN 제재는 재부과	P5+1은 핵관련 추가 제재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
	(PMD) IAEA의 우려 해소 위한 일련의 조치 이행 합의	(PMD) 언급 없음
R&D 합의 이행기간	(R&D) 기술개발은 합의에 입각, 제한된 범위에서만 수행	R&D 지속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합의 이행 10년내 IR-4, 5, 6, 8 등에 대한 R&D 기능
	(10년 제한) 이란 우라늄 농축 및 관련 연구 개발 활동 제한 / 10년 경과 후, 이란이 IAEA에 제출할 계획, JCPOA 및 IAEA 추가 의정서 등에 입각해 관련 활동 지속 제한	
	(15년 제한) 3.67% 이상 우라늄 농축 활동 금지 및 우라늄 농축 목적 시설 신축 금지	JCPOA 기간은 총 10년 / 합의 이행 10년간 나탄즈 핵시설에서 원심분리기 5천개 이상으로 3.67% 농축 프로그램 지속
	(15년 이상 혹은 영구 제한) 사찰 및 투명성 분야 중요 조치, IAEA 추가의정서 축 금지의무 수용 분야는 영구적 의무, 이란 우라늄 공급 체인에 대한 감시는 25년간 유효 / 동 기한 종료 후에도 이란이 NPT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이상 핵무기 개발·획득 금지는 물론 핵활동에 대한 IAEA의 안전보장 조치 수용의 의무는 여전히 잔존	

(첨부 2. 이란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내 용																												
정 부	○ 인구(World Bank) - 약 8천 80만																												
	○ GDP(단위: 10억불, World Bank, IMF) - ('14) 406 → ('15) 393.4																												
	○ 경제성장률(World Bank, IMF) - ('12) -6.8% → ('13) -1.9% → ('14) 3.0% → ('15) 0.6%																												
	○ 원유 생산 및 수출 (OPEC, 현지언론 자료)																												
	<table><tr><th>구 분</th><th>2011년</th><th>2012년</th><th>2013년</th><th>2014</th></tr><tr><td>원유생산 (백만배럴/1일)</td><td>3.62</td><td>2.97</td><td>2.68</td><td>2.77</td></tr><tr><td>원유수출 (백만배럴/1일)</td><td>2.10</td><td>1.53</td><td>1.20</td><td>1.12</td></tr><tr><td>원유수익 (10억불)</td><td>118.23</td><td>68.13</td><td>41.61</td><td>48</td></tr></tabl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원유생산 (백만배럴/1일)	3.62	2.97	2.68	2.77	원유수출 (백만배럴/1일)	2.10	1.53	1.20	1.12	원유수익 (10억불)	118.23	68.13	41.61	48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원유생산 (백만배럴/1일)	3.62	2.97	2.68	2.77																									
원유수출 (백만배럴/1일)	2.10	1.53	1.20	1.12																									
원유수익 (10억불)	118.23	68.13	41.61	48																									
	○ 환율(달러당): ('13.6월 대선 이후) 30,000리알 →('14.11.24.) 32,500리알 → ('15.3.14.) 32,050리알→(4.4) 32,700리알→(4.11) 33,100리알→(4.18) 33,280리알																												
가 계	○ 물가상승률(World Bank, IMF, CBI) - ('12) 30.5% →('13) 34.7% →('14) 14.8% →('15) 16.5%																												
	○ 실업률 : 일자리 창출은 로하니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로서 향후 8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 - (2012) 12.2% → (2013) 10.4% → (2014) 11.21% → (2015) 12.27% ※ 실제 실업률은 20% 이상으로 추정되며 여성(24%)과 청년(20%) 실업률이 특히 높은 상황																												
기 업	○ 대외 수출입(이란 관세청: ICA)																												
	<table><tr><th>구 분 (단위 : 10억불)</th><th>'11년</th><th>'12년</th><th>'13년</th><th>'14년</th></tr><tr><td>원유(Oil) 수출</td><td>118.23</td><td>68.13</td><td>41.61</td><td>48</td></tr><tr><td>비원유(Non-Oil) 수출</td><td>43.80</td><td>41.33</td><td>40.37</td><td>49.74</td></tr><tr><td>수 입</td><td>61.80</td><td>53.34</td><td>48.36</td><td>52.47</td></tr><tr><td>계</td><td>223.83</td><td>162.80</td><td>130.34</td><td>150.21</td></tr></table>					구 분 (단위 : 10억불)	'11년	'12년	'13년	'14년	원유(Oil) 수출	118.23	68.13	41.61	48	비원유(Non-Oil) 수출	43.80	41.33	40.37	49.74	수 입	61.80	53.34	48.36	52.47	계	223.83	162.80	130.34
구 분 (단위 : 10억불)	'11년	'12년	'13년	'14년																									
원유(Oil) 수출	118.23	68.13	41.61	48																									
비원유(Non-Oil) 수출	43.80	41.33	40.37	49.74																									
수 입	61.80	53.34	48.36	52.47																									
계	223.83	162.80	130.34	150.21																									
	○ 수입국(대이란 수출국) 순위(ICA) - 2013년 : UAE(22%)-중국(19.5%)-인도(8.7%)-한국(7.8%)-터키(7.3%) - 2014년 : 중국-UAE-한국-터키-인도																												

(첨부 3. 이란 주요 개발 프로젝트)

1. NIOC(National Iranian Oil Co.) 오일가스 Project

- 14개 block 탐사 및 개발 Project
 - Kalat, Ghuchan, Naftshahr, Illam, Danal, Bandar Abbas, Fasa, Raaz, Tapeh Marveh, Moghan, Kavir, Alvand, Laleh, taban
- 30개 유전개발
 - Yadavaran, North Azadegan, Bande-karkheh, Arvandan, Susangerd, Cheshmeh khosh, Changuleh, Azar, Rig, Shorum, Duru, Southwest Zagros, Southeast Zagros, Kuh Mond, Viznahr, Shakheh, Abadan, Alborz, Bushgan, Bushehr, Esfandiyar, Ferdowsi, Towsan, Mahshahr, Hengam, Alfa oilfield
- 11개 가스전개발
 - Assaluyeh, South Goshuy, Dey, Sefid-zakhr, Gordan, Soru, Namak-gharbi, Zireh, Farsi(Farzad-bi), Lavan, Kish
- 9개 가스 formations 개발
 - Karanj(Khami), Lab-e-sefid(Bangestan), Rag-e-sefid(Khami), Milatoon (Someh), Ilam layer of Esfand Field, Ghar layer of Bahregansar Field, Dalan/Kangan layer of Resalat, Dalan/Kangan layer of Reshadat, Dalan/Kangan layer of Balal
- 기타사업
 - LNG and gas plants
 - Oil recovery
 - Gas injection 등

2. NPC(National Petrochemical Co.) 석유화학 Project

- Parsian 지역(앗살루에 인근)
 - 7th olefin(18억불), 3rd PTA/PET(12억불), Olefin(21억불), PHD/PP(6.6억불), 1st GTX(15억불), MTP/PP(4.8억불), MMA/PMMA(6.1억불), MTP/CAN(14억불), VAM/EVA/PVOH(6.3억불), MEG(4.1억불)
- Assaluyeh 지역
 - Butadiene/Styrene(6.5억불), Polyol/Propylene Glycol(1.2억불)
- Mahshahr 지역(이맘 호메이니항)
 - Benzene Chain(3.7억불), Olefin(4억불), EPDM(1.4억불), 2nd Engineering Polymers(9.1억불), Acrylonitril(3.1억불)
- Chabahar 지역(차바하르항)
 - Ammonia/Urea(6억불), 3rd GTPP(10억불), Methanol/Ammonia(3.4억불), DME/Methanol(6.6억불)

- Ghesm Island 지역(압바스항) : 4th GTPP(11.5억불)
- Bandar Moghaam(Lavan섬 인근) : 5th GTPP(11.5억불)
- Bandar Abbas : 6th GTPP(11.5억불)
- Jask 지역
 - 2nd GTX(17.3억불), OCM(10.9억불), Cyclar(5.5억불)
- Kharg 지역(부쉐르항)
 - PDH/PP(5억불)
- Sarakhs 지역(Khorasan) : 1st GTO(17.6억불)
- Atrak Special Zone(카스피해 연안) : 2nd GTO(17.6억불)

3. IMIDRO 광공업 Projects

*Iranian Mines and Mining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 주요 프로젝트 (IMIDRO 지분 : 35% 등)
 - Sabzevar Steel Complex(철강 80만톤/y) : 258백만유로
 - Baft Steel Complex(철강 80만톤/y) : 245백만유로
 - Shadegan Steel Complex(철강 80만톤/y) : 276백만유로
 - Neiriz Steel Complex(철강 80만톤/y) : 273백만유로
 - Mianeh Steel Complex(철강 80만톤/y) : 282백만유로
 - Ghaenat Steel Complex(철강 80만톤/y) : 289백만유로
 - Sefid Dasht Steel Complex(철강 80만톤/y) : 293백만유로
 - Graphite Electrode(Electrode 3만톤/y) : 250백만유로
 - Parvarde 4(Concentrate Coal 35만톤/y) : 95백만유로
 - South Aluminum(알루미늄 33만톤/y) : 880백만유로
 - Green Coke(Green Coke 20만톤/y) : 149백만유로
 - Kahnoj Titanium(산화 티타늄 7만톤/y) : 85.5백만유로

4. MRUD(Ministry of Roads & Urban Development) 고속도로 Projects

- Tabriz-Marand-Bazargan(250km)
- Manjil-Roodbar(11km)
- Emamzadeh Hasham-Rasht(12km)
- Sirjan-Bandar Abbas(300km)
- Tehran southern beltway(156km)
- Andimeshk-Ahvaz(134km)
- Salafchegan-Arak(146km)
- Shirzaz-Bushehr(230km)
- Pardis-Roodhen(13km)
- Isfahan-Izkhast(160km)
- Isfahan eastern beltway(90km)

5. MRUD(Ministry of Roads & Urban Development) 철도 Projects

- Ghazvin-Rasht-Anzali(164km)
- Dorood-Khoramabad-Andimeshk(216km)

- Gorgan-Bojnood-Mashhad(638km)
- Isfahan-Azna(322km)
- Tehran-Mianeh(2nd line)(400km)
- Bam-Jiroft(174km)
- Connecting Sarab(155km)
- Connecting Yasouj(150km)
- Connecting Ilam(80km)
- Ghazvin-Mohammadieh(20km)
- Roodhen-Larijan-Amol(136km)
- Connecting Khalil-Abad and Kashmar(220km)
- Connecting Doogharoon(200km)
- Connecting Zanjan-Tabriz to Hamedan-Sanandaj(120km)
- Isfahan-Arak(165km)
- Adding Darab to Golgozar-Shiraz(120km)
- Bojnood-Esfarayan-Neghab(101km)

6. MOE(Ministry of Energy) 발전-수자원분야 Projects

- Bazoft Dam(240MW) : 312백만유로
- Dez I, II, III Run-Off-River(225,490,215MW) : 390, 637, 280백만유로
- Garsha Dam(211MW) : 200백만유로
- Gezel Ozan Dam(200MW) : 260백만유로
- Ilam Pumped-Storage(1,000MW) : 509백만유로
- Karkheh II Dam(360MW) : 468백만유로
- Karun II Dam(712MW) : 441백만유로
- Khersan I, II Dam(584,682MW) : 760, 800백만유로
- Liro Dam(342MW) : 356백만유로
- Polrud III Run-Off-River(104MW) : 160백만유로
- Zalaki Dam(466MW) : 558백만유로
- Thermal Power Plant : Yazd, Zanjan, Soufian 등